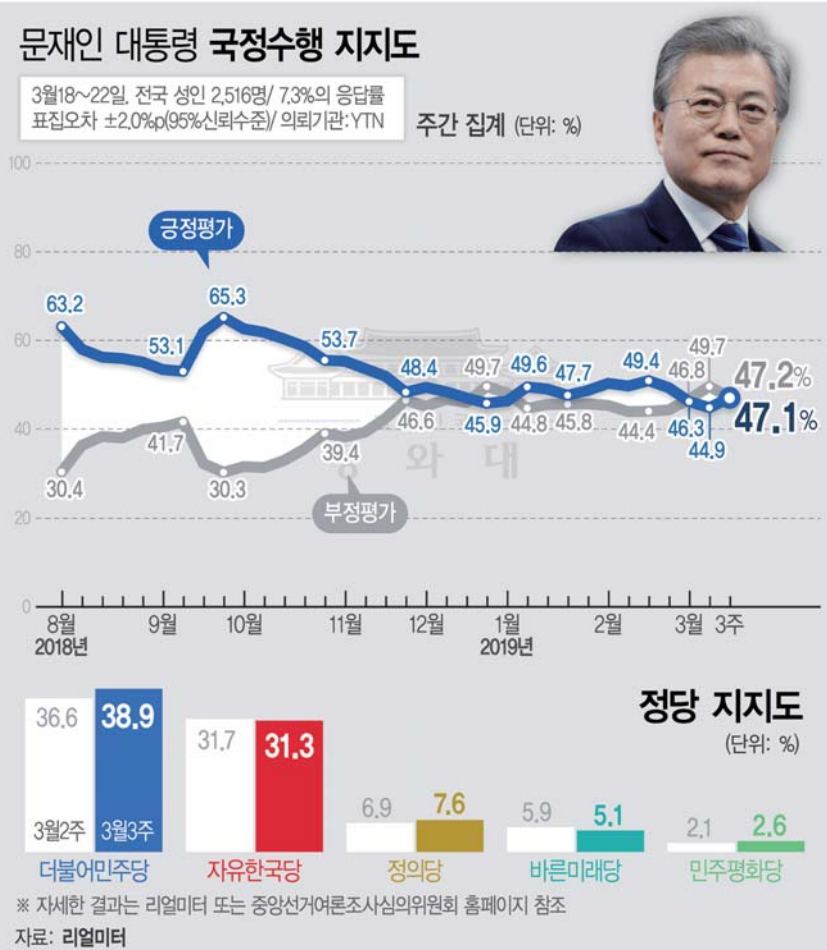


# 文 지지율, 전주비 2.2%p 오른 47.1%

###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 개혁 둘러싼 대립선 뚜렷 영향”

### 내림세 멈춘 민주당 38.9%·4주 연속 상승세 끊긴 한국 31.3%



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2.5%p 내린 47.2%(매우 잘못 31.1%·잘못 하는 편 16.1%)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가 부정평가가 0.1%p 초반반의 격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5.7%로 집계됐다.

이러한 반등세는 검찰과 경찰, 언론, 연예 등 특권층의 연루 정황이 있는 이른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3대 성(性) 비위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

리얼미터는 “3대 성 비위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고위공직자사수비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대립선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 대구·경북(TK)과 서울 50대와 30대, 가정주부와 무직, 사무직 등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노동직과 학생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0.0%p, 30.4%→30.4%, 부정평가 55.3%), 서울(▲6.3%p, 42.3%→48.6%, 부정평가 47.1%), 경기·인천(▲1.6%p, 47.5%→49.1%, 부정평가 44.1%), 대전·세종·충청(▲1.5%p, 47.5%→49.0%, 부정평가 46.0%), 광주·전라(▲1.1%p, 65.1%→66.2%, 부정평가 30.1%) 등에서 고루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2.4%p,

38.2%→35.8%, 부정평가 58.2%)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50대(▲5.0%p, 39.7%→44.7%, 부정평가 51.0%), 30대(▲3.3%p, 55.1%→58.4%, 부정평가 36.9%), 20대(▲1.7%p, 44.0%→45.7%, 부정평가 47.7%)에서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p, 18.2%→23.7%, 부정평가 72.7%)과 중도층(▲4.3%p, 43.5%→47.8%, 부정평가 48.7%)에서 상승했다. 무당층(▼4.2%p, 25.0%→20.8%, 부정평가 58.5%), 진보층(▼1.1%p, 72.2%→71.1%, 부정평가 25.1%)에서는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5%p, 33.5%→38.0%, 부정평가 53.3%), 무직(▲4.3%p, 34.7%→39.0%, 부정평가 53.7%), 사무직(▲3.1%p, 56.5%→59.6%, 부정평가 35.2%)에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노동직(▼4.5%p, 44.5%→40.0%, 부정평가 53.6%)과 학생(▼3.0%p, 45.6%→42.6%, 부정평가 56.1%)에선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했다. 40% 선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2.3%p 오른 38.9%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끊고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주 대비 0.4%p 내린 31.3%를 나타냈다.

정의당 7.6%, 바른미래당 5.1%, 민주평화당 2.8% 순으로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2.8%로 조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동영, 北 연락사무소 철수에 “정부 美 눈치만·구경꾼 전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을 강력히 항의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북한을 향해 “이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

라며 “이 점에 대해 북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눈치를 거둬야 한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트러에 실어 보내는 게 제재 위반이라는 유엔의 제재에 직소리도 못했다”며 “너무 무소신이고 눈치 보는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답은 정면승부다. 구경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민족 한 반도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3당 원내대표, 회동은 했으나...선거제 등 논의 ‘공회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5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장실에서 30분 가량 회동했지만 각 당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입법이라도 처리하자고 회동을 제안했다”면서도 “결론이 난 건 없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 고수  
민주당-바른미래, 공수처 권한 등 이견 재확인**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도 다시 논의하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조속

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범위를 둘러싼 민주당

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안 등을 주장하고 있

다. 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쉽지 않고 공수처장의 야당 몫 추천위원을 늘리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개특위에서 저희 안을 어느 정도 받을지 논의해볼려고 했다”며 “그 논의에 따라서 사개특위에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며 “홍 원내대표가 최대한(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니 사개특위에서 의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의혹, 송구”

다주택자로 수 억원 시세차익...지명 직전 자녀에게 증여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자신에게 제기된 폼프 증여와 갭투자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에서 국민과 국토위원들이 제기한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1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소유했던 다주택자로 이 중 잠실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여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분당 아파트는 지명 직전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들 아파트·분양권은 세 곳 모두 매입 때보다 수억원이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달인’ 국토투기부 장관 등의 오명도 생겼다. ‘불법’은 아니지만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